

전남지역 청년농, 농지 빌리기도 ‘좁은 문’

전남지역 청년농이 지난해 공공임대농지로 신청한 면적의 3분의 1가량을 지원받지 못하면서 영농 정착을 뒷받침할 농지 공급 확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농지연금도 전국 대기가가 4000명을 넘어섰는데, 농지전수조사 이후 늘어날 매입·이양 수요에 대비해 농지은행 사업의 예산과 대응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청년농의 공공임대농지 신청 면적은 753ha였지만 실제 지원 면적은 512ha에 그쳤다.

신청 면적 대비 지원 비율은 68.0%로, 나머지 32.0%인 241ha는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부족 면적을 ㎡로 환산하면 241만㎡에 달한다.

공공임대농지는 농어촌공사가 확보한 농지를 청년농에게 빌려주는 사업이다. 영농 기반을 마련하려는 청년들에게 농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만, 전남에서는 지난해 신청 면적과 지원 면적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했다.

청년농 육성정책을 통해 영농 진입을 지원하더라도 실제 농사를 지을 땅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정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농지 공급이 정책 수요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매입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신청 753ha 중 512ha 지원…241ha 부족 농지연금도 전국 대기 4038명…예산 확충 시급 “전수조사 이후 매입·이양 수요 증가 대비해야”

농 선발 인원을 늘렸지만 공공임대농지 매입 예산은 이에 맞춰 확보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농지 확보의 어려움은 청년농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노후자금을 받는 농지연금 역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대기 인원이 늘고 있다.

전국 농지연금 대기는 처음 발생한 2024년 1996명에서 올해 9월 기준 403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신청자는 5572명, 선정자는 1534명으로 집계됐다.

농지연금은 예산 부족으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연말 기금변경을 통해 매년 200억~35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

을 마련했다. 올해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대기 인원을 해소하려면 409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도 수요와 예산 사이의 격차가 크다. 공사의 지난 8월 5일 기준 전망에 따르면 올해 전국 매입 수요는 집수 완료 물량 5270ha와 추가 예상 물량 1650ha를 합쳐 6920ha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올해 예산으로 매입할 수 있는 면적은 3700ha에 그쳐 연말까지 3220ha가 대기 물량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됐다. 공사는 이 물량을 매입하는 데 1조239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농지전수조사로 처분 대상 농지가 늘어나면 농지 매입과 이양 수요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청년농의 영농 기반 확보와 고령 농업인의 노후 지원을 함께 뒷받침하려면 현재의 대기 수요 해소뿐 아니라 향후 수요 증가까지 고려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청년농은 농지를 구하지 못해 줄을 서 있고, 고령 농업인은 농지연금조차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농어촌공사와 정부는 농지매입·농지연금·은퇴직불 예산을 실제 수요에 맞게 확보하고, 늘어남 업무 부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현대자동차그룹 정기선 회장(사진 왼쪽)이 13일(현지 시간) 인도 뉴 델리에 위치한 인도 총리 관저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만나 현대차그룹의 현지 성장 전략을 설명하고, 인도 모빌리티 산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현대차, 인도에 155억 달러 투자·전문 법인도 설립”

정기선 회장, 모디 총리와 모빌리티 산업 발전 방안 논의 신공장 건설·R&D 역량 강화·미래 신기술 개발 등 추진

현대자동차그룹 정기선 회장이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만나 현대차그룹의 현지 성장 전략을 설명하고, 인도 모빌리티 산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정기선 회장은 13일(현지 시간) 인도 뉴 델리에 위치한 인도 총리 관저에서 모디 총리와 개별 면담을 가졌다.

정기선 회장은 먼저 모디 총리에게 “현대차그룹은 1996년 인도에 진출한 이후 지난 30년간 인도와 함께 성장해 왔다”고 말하고, 현대차그룹에 대한 인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의 인도 사업 현황을 비롯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자동차 시장인 인도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등을 설명했다.

정기선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푸네 공장 가

동을 통해 연 140만대 생산 체제를 확보했으며, 안정적인 생산으로 인도 자동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인도는 현대차그룹의 미래 성장과 신흥국 시장 확대를 견인할 전략 국가”라며 “올해부터 7년간 약 15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구체적으로 신공장 건설, R&D 역량 강화, 현지 공급망 경쟁력 제고, 미래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인도 현지 기반 강화와 사업 기회 확대를 통해 명실상부한 인도 최상위 모빌리티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위해 인도 내 투자 전문 법인 설립도 추진한다.

정기선 회장은 현대차그룹의 인도 지역 사

회 내 지속적인 상생 노력에 대해서도 “현대차그룹은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세대 성장 지원 등 인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기선 회장은 모디 총리의 만남은 이번이 여덟 번째다. 두 사람은 그동안 수차례 마주하며 인도 산업 발전과 현대차그룹의 현지 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 왔다.

정기선 회장은 지난 4월 한국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당시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모디 총리 오후에 참석했고, 2024년 현대차 인도 법인의 인도 증시 상장을 계기로 모디 총리와 개별 면담을 가졌다. 이 밖에도 2015년 모디 총리 방한과 한-인도 비즈니스 서밋, 인도 ‘MOVE 모빌리티 서밋’ 등 여러 계기를 통해 소통했다.

한편 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인 자동차 산업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인도 전체 자동차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승용차 시장은 지난해 457만대에서 올해는 525만 대로 15%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인도는 대규모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입 완성차에 대한 관세가 70~110%에 달해 현지 생산 기반 확보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중동·아프리카 등 주요 신흥 성장 국가들과 인접해 글로벌 사우스 지역을 겨냥한 수출 거점으로 지리적 이점이 높고, 낮은 제조 원가로 제조 경쟁력 확보가 유리한 점 등으로 인해 세계적인 제조·수출 허브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이 같은 인도 시장의 성장에 맞춰 현지 생산 기반을 지속 확대해 왔으며, 현재 인도 첸나이 현대차 1·2공장, 푸네 현대차 3공장, 아난타푸르 기아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인도에서 현대차 57만1878대, 기아 28만286대 등 총 85만2164대를 판매해 18.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인도 내 2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정송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광주 농지 17만4439㎡ 외국인인 샀다

전남 3년 새 77.5% ↓…광주 8월까지 작년 규모

전남광주지역에서 최근 5년간 외국인이 취득한 농지가 17만44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농지는 전남 16만8688㎡, 광주 5751㎡로 집계됐다. 양 지역을 합하면 17만4439㎡로, 약 17.4ha 규모다.

전남의 연도별 취득 면적은 2022년 6만7440㎡에서 2023년 4만636㎡, 2024년 3만8873㎡, 지난해 1만5181㎡로 매년 감소했다. 지난해 취득 면적은 2022년보다 5만2259㎡ 줄어 감소율이 77.5%에 달했다.

올해는 8월까지 6558㎡가 취득됐다.

광주는 2022년 767㎡가 취득된 뒤 2023년과 2024년에는 취득 실적이 없었다. 이후 지난해 2391㎡로 취득이 재개됐으며, 올해는 8월까지 2593㎡를 기록, 이

미 지난해 연간 면적을 202㎡ 넘어섰다.

전남광주를 합산한 연간 취득 면적은 2022년 6만8207㎡, 2023년 4만636㎡, 2024년 3만8873㎡, 지난해 1만7572㎡였다. 지난해는 2022년보다 74.2% 감소했다. 올해 8월까지 두 지역의 취득 면적은 9151㎡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같은 기간 중국인의 농지 취득 면적이 68만29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51만2253㎡, 캐나다 20만8190㎡, 일본 4만2975㎡ 순이었다. 중국인의 연간 취득 면적은 2022년 15만2785㎡에서 지난해 19만9534㎡로 30.6% 증가했다.

김 의원은 “식량안보의 기반인 농지가 특정 국가에 쏠리는 것은 안보적으로 우려스럽다”며 “외국인 농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한전, 고졸 입사직원 2명 차장 특별승진

일반 경로보다 1~2년 앞당겨…능력 중심 인사

한국전력이 전력계통 운영 효율을 높이고 전력망 위험요인을 해소한 성과를 인정해 고졸 전원으로 입사한 직원 2명을 차장으로 특별승진시켰다.

한전은 회사의 전략목표 달성과 업무 성과에 기여한 직원 12명을 특별승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승진은 회사 발전에 공헌한 직원을 대상으로 승진 자격과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부장·차장 등 한 단계 높은 직급으로 승진시키는 제도다.

이번 대상자 가운데 고졸 전형 입사 직원 2명은 전력계통 운영의 효율성·경제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을 해소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고졸 입사자가 일반적인 승진 경로를 통해 차장이 되기까지는 9년 이상 걸리지만, 두 직원은 이보다 1~2년 앞서 관리자급인 차장으로 승진했다.

한전은 학력이나 입사 배경보다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과 업무 성과를 중시한 인사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고졸 인재의 채용과 육성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3년간 고졸 입자리 300개 창출을 추진 중이다. 올해도 고졸 공개채용 확대와 채용연계형 교육 프로그램인 ‘KEPCO 에너지아이스쿨’ 운영을 통해 취업 기회를 넓히고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한전은 앞으로도 우수 성과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일과 성과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한국 유선 인터넷 속도, 베트남·태국에도 밀렸다 우클라 9월 집계 ‘세계 22위’…모바일은 세계 6위

‘인터넷 강국’으로 알려진 한국의 유선 인터넷 속도가 세계 22위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글로벌 네트워크 성능 평가 기관 우클라의 ‘스피드테스트 글로벌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유선 인터넷(고정 광대역) 속도는 251.33Mbps로 세계 22위로 집계됐다.

유선 인터넷 속도 1위는 싱가포르(462.50Mbps)였으며, 아랍에미리트(UAE·382.40Mbps)와 칠레(364.48Mbps)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프랑스는 5위, 미국은 7위였다.

베트남(301.48Mbps)과 태국

(298.92Mbps)도 각각 8위와 9위에 올라 한국보다 빠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모바일 인터넷 속도는 한국이 250.56Mbps로 세계 6위였다.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는 UAE, 카타르, 쿠웨이트, 독일, 브라질 등 5개국이었다.

도시별 모바일 인터넷 속도 순위에서는 서울이 13위, 부산이 32위를 기록했다. 유선 인터넷 속도는 서울이 34위, 부산이 44위였다.

우클라는 전 세계 사용자가 매달 실시하는 수억 건의 속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인터넷 속도를 집계한다.

크롬, 국내 검색·브라우저 앱 사용시간 1위

네이버·삼성 브라우저 뒤이어

구글 크롬이 국내 스마트폰 검색·브라우저 앱 사용시간에서 5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네이버와 삼성 브라우저가 뒤를 이은 가운데 상위 3개 앱에 전체 사용시간의 약 80%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앱·결제 데이터 분석업체 와이즈앱·리테일은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Android·iOS)를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 9월 가장 오래 사용한 검색·브라우저 앱은 구글 크롬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크롬의 9월 총 사용시간은 2억6000만 시간으로, 2위 네이버의 2억4000만 시간

을 앞섰다. 삼성 브라우저는 1억3000만 시간으로 3위를 기록했다.

크롬은 지난 5월 네이버를 처음 앞선 이후 9월까지 5개월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상위 3개 앱의 총 사용시간은 약 6억 3000만 시간으로, 상위 10개 앱 전체 사용시간의 약 80%를 차지했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검색·브라우저 활동이 주요 앱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 셈이다.

이어 구글이 8700만 시간으로 4위에 올랐으며 브레이브(3800만 시간), 다음(2300만 시간)이 뒤를 이었다. 웨일은 570만 시간, 네이버와 파이어폭스는 각각 350만 시간,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180만 시간으로 집계됐다.

윤용성 기자